

교차로

선원사에 아미타불 기증 이천진심 보살



“교리발만대장경이 조성됐던 유서깊은 선원사에 그동안 제가 모셔왔던 아미타 삼존불을 봉안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일 선원사 복원불사에 조선시대 아미타 삼존불을 기증한 이천진심보살(70)은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내내 나무 아미타불 육자진언을 염송하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유서깊은 사찰서

햇빛보게돼 기뻐요”

30여년전부터 가정에 법당을 마련, 아미타부처님께 매일 조석예불을 드려온 이 보살은 “이곳 강화도에서 아미타부처님이 다시 화현하여 보다 많은 불자들이 대광명의 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존불이 원래의 제자리를 찾지 못한데 대해 다소 안타깝다는 이 보살은 “이곳 유서깊은 도량에서 남은 여성동안 선원사를 찾는 불자들을 위해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

동대경주 정각원서 법문

백운스님(범어사 전 강주)은 오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리는 법회에 초청 설법을 한다.

대구봉축 준비위원장

무공스님(통화사 주지)은 지난 7일 열린 대구광역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오백나한등 집안법회

도영스님(김제 금산사 주지)은 지난 4일 새로 신축된 금산사 나한전의 오백나한, 십육나한, 사천왕상 금강역사의 집안 대법회를 주관 봉행했다.

부산거사법회서 설법

종필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지난 11일 동도사 부산 포교전에서 열린 부산불교거사법회 정기법회에서 승만경을 주제로 설법했다.

뇌허학술상 시상식 주관

광우스님(정각사 주지, 뇌허학술상 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성북구 정각사에서 제12회 뇌허학술상 시상식을 주관했다.

서울사무소 이전개원법회

종필스님(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사무소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2)797-0585

안양 광명의원 개원

각현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은 지난 8일 안양시 안양중앙복합지관 2층에 다섯번째로 노인 무료병원 광명의원을 개원했다.

안양불교연 회장취임

대봉스님(불성사 주지)은 지난 4일 안양 뉴리리아호텔 대연회장에서 안양불교연회장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4월혁명 기념음악제 개최

안동일씨(제가연합상임회장·4월회장)는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에서 4월혁명 35주년 기념음악제 ‘코리아 환타지 - 4월의 향연’을 개최했다.

선우만남의 날 가져

남지심씨(우리는 선우 대표)는 22·23일 양일간 충북 괴산공립심원원에서 선우 만남의 날을 갖는다. 이번 만남의 날에는 불교지도자 탁남한스님의 지도로 행선수련을 실시한다.

백동암 첩거 ‘국수’ 집필

김성동씨(소설가)는 장편 소설 ‘국수’를 완성하기 위해 8일부터 경남 김해 백동암에서 첩거에 들어갔다.

불교조형연구소 열어

이기선씨(동대 박물관 연구원)가 서울 용산구 청과동 1가에 ‘불교조형연구소’를 개소했다. 이씨는 연구소를 화살과 집필 및 각계의 학문에 정통한 젊은 불교학자들의 토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대불청 체육대회

고정관회장(대불청 전북지사)은 지난 2일 금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회원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여성장애인’ 주제 발표

방귀희씨(작가)는 지난 7일 재광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과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대중상 남우주연상 수상

김갑수씨(연극·영화배우)가 지난 1일 금년도 제33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만혜스님에게서 강세를 통해 신심을 자랑하기도 했던 김씨는 “첫 영화출연에서 이같이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며 “연극인으로서 영화배우로서

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것”

은 소감을 밝혔다.

계몽사 아동문학상

우봉규씨(작가)가 아동극 ‘갈매기야 훨훨 날아라’로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받았다.

일 나고아서 판화전

강행복씨(판화가)는 일본 나고아시 데이메즈 백화점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판화전’을 갖는다. 이번 판화전에서 강씨는 묵관, 석관, 실크로드의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다.



진각종 환경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운동본부(총재 최지광)가 지난 8일 환경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중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운동에 모범적 역할을

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것”

은 소감을 밝혔다.

계몽사 아동문학상

우봉규씨(작가)가 아동극 ‘갈매기야 훨훨 날아라’로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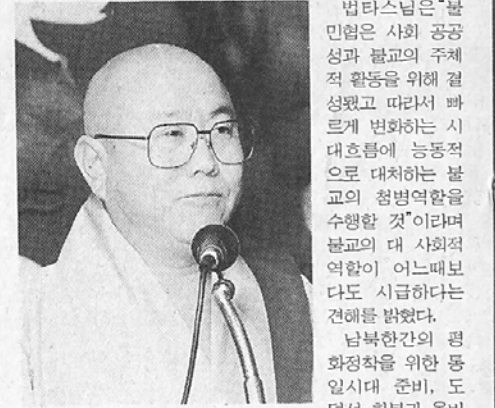
일 나고아서 판화전

강행복씨(판화가)는 일본 나고아시 데이메즈 백화점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판화전’을 갖는다. 이번 판화전에서 강씨는 묵관, 석관, 실크로드의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다.

인터뷰

“불교의 사회활동 강화” 종교간·국제교류에도 앞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로 구원을 위한 대 사회적 보살행 실천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지난 1일 11개의 불교 시민사회운동단체가 모여 정법구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은 법타스님.



불교시민단체협 초대 상임대표 법타스님

내일 방침일을 밝힌 법타스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불자들이 사회 공동체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결과로 제로 깨달음의 사회화, 대중화, 현장화를 얼마나 실천하는지이며 불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여러 단체가 모인만큼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법타스님은 “불민협은 어느 단체의 이익보다는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한만큼 지속적으로 단합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개혁적이며 온건중도와 비정치적으로 불민협을 운영하겠다는 법타스님은 “대 사회적 활동 외에도 종교간의 교류를 통한 친선 도모와 불교의 국제교류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불민협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룩하고 선도하는 정법의 실무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명우 기자)

게시판

- ▲ 제49회 다보문화강좌 = 12일(수) 오후 2시 불교방송 공개송에서 “일본고서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주제로 이영희씨(전 공연운리위원장)가 강연한다. (02)703-0108
- ▲ 제6차 신인대회=월간 ‘정보’(발행인 법륜)는 15, 16일 1박2일간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창간 7주년 기념행사로 제6차 신인대회를 갖는다.(02)571-3144
- ▲ 김대중씨 강연=김대중씨(아·태재단 이사장)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중앙승가대학에서 ‘남북통일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02)925-5507
- ▲ 제10기 생태학교=한국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1일부터 5월27일까지 환경교육강좌인 ‘제10기 생태학교’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화·금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02)765-6324
- ▲ 불교사상강좌=화엄학회(회장 손창대)는 4월14일부터 1, 3주(금, 토)격주로 2년 과정의 불교사상강좌를 연다. 최봉수 소장(불교원전번역연구소)의 강의로 삼일선원 법당에서 강한다. (02)237-4438-9
- ▲ 제78기 기초 교리강좌=대한불청 직할 서울불교청년회는 3개월간의 기초교리 강좌를 개최, 제7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도법사는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 (02)730-9108
- ▲ 수교회실 수강생모집=범어사 불교청년회(회장 임한석)는 1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열리는 ‘지원봉사자를 위한 수교회실’ 수강생을 모집한다.(051)411-7700

연꽃마을의 ‘아들 딸 온정’ 매일 목욕·이발 해주며 정다운 말벗 돼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이웃사촌 봉사회

한마디에 “허허”하고 웃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위로 붉은 주름이 드리운다. 밥 잘 먹고 잘 자라니까 그렇지하며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볼이 자랑이처럼 파릇한 온정이 피어나는 것만 같다.

30여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은 의료용과 교육장으로 정을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웃사촌 봉사회는 이발봉사, 목욕봉사를 하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밀린 빨래까지 손수 정리해, 이날 하루만큼은 할머니 할머니들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

“음식이 후원금 같은 물질적인 봉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이들을 찾아와 잠깐동안이라도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것 같다” 봉사회 시작했습다”

이웃사촌봉사회 총무 강종자씨의 말이 끝나자 마자 “우리도 머지않아 노인이 될텐데 조금이라도 젊어 건강할 때 봉사를 해야죠”라며 회원들이 입을 모았다.

양로원 봉사활동을 통해 언젠가는 자신들도 노인이 될 것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삼 깨달아 간다는 이들이야말로 부처님 공경하듯 노인을 모시며 올바른 불법실천을 펼쳐보이고 있는 ‘별 보살’들이 아닐까. (이은자 기자)



이웃사촌 봉사회는 부처님 공경하듯 노인을 모시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이얀 김이 모락모락 솟아 오르는 연꽃마을 목욕실. 걸 옷을 벗어던지고 할머니들의 목욕을 도와주며 그동안 쌓였던 고독과 외로움의 때를 모조리 씻어내는 보살들의 손길

이 유난히 따뜻하기만 하다. 매일 넷째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을 찾아오는 이들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이웃사촌 봉사회(회장 안태인)’의

세계와 남북평화통일기원 및 국제보살수계 대법회

일 시 : 1995년 4월 15일(음·3월 16일) 오후 1시
장 소 : 대구실내체육관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은 국민이 세계화로 총매진하는 이때 세계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미안마고승을 초청 국제 보살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호국불교의 이념으로 삼국통일의 대위업을 이룩하신 선조들의 얼을 되살리고 이미 실추되어 버린 윤리와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대자비사상과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보살계를 받게 하여, 이 민족과 이 국토가 평화롭고 복되고 참된 삶을 누리며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법회를 개최하오니 수회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39년 4월 일

증 명 : 종정 구암 대종사
미안마 빠단타 케싸라
삼회상 : 신혜성 대종사
노정공 대종사
미안마 빠단타 라린다 싸라
철증사 : 노금파 대종사
원법경 대종사
김영산 종 사
박운명 종 사
안경해 종 사
송설호 종 사
고 문 : 주법계, 신혜성, 노정공, 노금파,
원법경, 이경일,
최해산, 김영산,
박운명, 송설호, 허중찬, 박법안 (무순)

호계법사

최복규, 이각규, 전병수, 유원봉, 김용배, 주운경, 김법초, 박팔봉, 김경담, 김무량, 김종암, 김윤곤, 방각신, 김고산, 손오봉, 권종범, 김법진, 박성파, 이종파, 강일조, 권영호, 김희범, 김월강, 김정용, 최종수, 정백봉, 육대원, 박성팔, 전길원, 박광조, 윤갑식, 장이문, 장창규, 김창수, 주연호, 김용구, 양일근, 문성근, 이해암, 이해암, 전용기, 임정순, 이법공, 권혜각, 김수경, 김호이랑, 이영암, 박삼장, 윤보명, 김상운, 김학산

대회장 총무위원장 김 대 호 스님

대회집행위원장 장 지 연 스님

대회 총무부장 김 덕 진 스님

재무부장 나 활 정 스님

사회부장 박 보 광 스님

홍보부장 박 철 우 스님

의전부장 황 해 수 스님

동원부장 한 성 학 스님

회계부장 김 경 호 스님

의무부장 김 신 복(불교한방병원)원장

봉사부장 박 도 정 스님

사 단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대 호
법 인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 ☎ 762-2678, 764-2678 FAX : 747-5044